

19세기 초반 서양 선교사에 의한 《논어》 활용 연구^{***}

– 마시만(Marshman) 《공자의 저작》(1809),
메드허스트(Medhurst) 《푸젠방언사전》(1832)을 위주로

신원철^{***}

-
1. 서론
 2. 19세기 서양 선교사에 의한 《논어》 활용
 - 2.1 논어 텍스트의 번역
 - 2.2 중국어 사전에서의 인용
 3. 서양 선교사 《논어》 활용의 특징 및 의의
 4. 결론
-

■ 국문요약

본 논문은 19세기 서양 선교사에 의해 중국 고전인 《논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중 번역과 관련하여서는 마시만의 《공자의 저작(The works of Confucius)》을 위주로, 사전류에서는 메드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3086868).

** 본 논문은 2025년 11월 8일 한국경학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수정을 거친 것이다. 토론에서 중요한 논점을 지적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신 최정섭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자 한다.

***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HK+사업단 HK조교수 / chimsky@paran.com

허스트의 《푸젠방언사전(A Dictionary of the Hok-keen Dialect of the Chinese Language)》을 통해 《논어》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특징으로는 마시만의 저작에서는 한자에 대한 설명에 충실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 메드허스트는 방언에 대한 사전임에도 그 예문을 사서오경에서 취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두 저작 모두 중국어 학습의 일환으로 《논어》를 활용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주제어: 동서 교류, 중국 경전, 경전 활용, 논어, 서양 선교사, 마시만, 공자의 저작, 메드허스트, 푸젠방언사전, 사서오경, 중국어 학습

1. 서론

본 논문은 19세기 초반 서양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기독교 선교사가 《논어》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세기 기독교 선교사에 의한 중국 선교의 특징으로는 서양인에 의한 중국어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전이 서쪽으로 전해진 상황에 있어 19세기까지 선교사가 활약한 것을 볼 수 있다. 신원철(2022)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교리의 강화, 중국 문명에 대한 소개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밝혔지만, 그 구체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들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점을 기반으로 하여 그 중 《논어》라는 텍스트가 그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야, 즉 번역과 사전에서의 인용을 위주로 제시하고 그 특징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9세기 서양 선교사에 의한 《논어》의 번역과 관련하여서는 Huang Yuxia(2023), p.43에서 간략하게 정리된 바가 있다. 또한 서양인에 의

한 중국어 사전의 편찬은 리샤오판 등(2025) p.71에서 그 목록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사전에서의 인용과 관련하여 경전, 특히 《논어》에 대한 분석은 주목받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대해 보충하는 성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서양 선교사에 의한 《논어》 활용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의 번역과 사전에서의 인용 두 가지 측면에 대해 각각 중요한 텍스트로서 마시만(1809)과 메드허스트(1832)를 대표로 선정하여 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된 내용을 통해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2. 19세기 서양 선교사에 의한 《논어》 활용

2.1 논어 텍스트의 번역

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고 그 성과도 상당히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김혜영(2021) pp.171-184의 내용을 기반으로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서양인에 의해 번역된 《논어》의 역사는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는 1591년부터 사서를 읽고 이를 라틴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나시우 다 코스타(Inácio da Costa, 1603?-1666)가 시도하였고, 프로스페로 인토르체타(Prospero Intorcetta, 1625-1696)에 의해 《중국의 지혜(Sapientia Sinica)》(1662)라는 이름으로 사서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 속에 《논어》의 상십편(上十篇)이 포함되었다. 하십편(下十篇)을 포함한 것으로는 쿠플레(Philippe Couplet, 1623-1693)의 《중국

철학자 공자(Confucius Sinarum Philosophus)》에 수록된 라틴어 번역이다.¹⁾

19세기로 들어와서는 조슈아 마시만(1768-1837)이 세람포르에서 발간한 《공자의 저작(The works of Confucius)》에서 《논어》의 상십편을 수록하였다. 이는 《논어》의 최초 영역본이다. 그 이후 데이비드 콜리(David Collie, 1791-1828)의 《사서라는 중국 경전(The Chinese classics work commonly called the Four Books)》(1828)에 수록된 이십 편 논어는 최초의 《논어》 완역이라 할 수 있지만, 이후 1861년에 나온 제임스 레그(James Legge, 1815-1897)의 《사서오경》 번역에 포함된 《논어》에 의해 주목받지 못하였다. 제임스 레그의 번역은 《사서오경》을 모두 완역하였다는 것에 크게 가치를 두고 오늘날까지도 공식적인 번역으로 사용되고 있다.²⁾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초반 번역으로서 마시만의 사서 번역, 즉 1809년에 인디아 세람포어(Serampore, 즉 지금의 콜카타)에서 발간한 《The works of Confucius containing the original text, with a translation(孔子的著作, 包含原文和譯文)》을 들고자 한다. 이 책은 본래 사서 전체를 번역하려고 계획되었으나 현재 남아 있는 책은 《논어》의 상십편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이 책의 앞 부분에서는 Life of Confucius라는 제목으로 공자의 생

1) 이하 프랑수아 노엘(François Noël, 1651-1729)의 《중국육경대전(Sinensis Imperii Libri Classici Sex)》에 수록된 《논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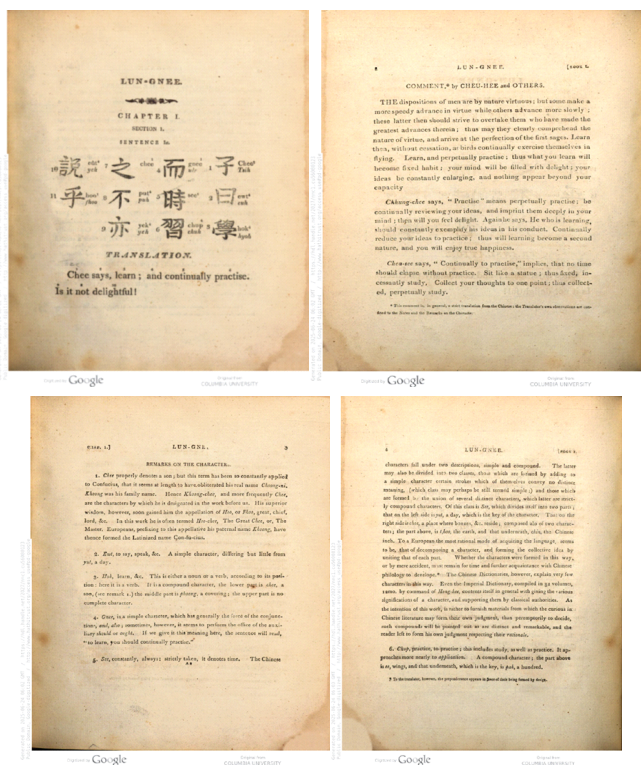
2) 제임스 레그의 번역에 대한 특징과 그 위상에 대해서는 이영호·손철배(2012), 결론부 참조.

3) 이에 대해서는 김혜영(2022), pp.114-118의 설명과 웹사이트 19th Century Chinese-English Translation Network의 Translation Formats (<https://translator.networks.tra.cuhk.edu.hk/exhibits/show/blog/translationformats>, 접속일: 2025.07.01.)에서 그 내용을 참조하여 기술한 것이다.

애, 그의 관련 저작인 오경과 사서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후로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논어》 상십편의 내용을 총 5권의 형태로 요약 정리하였다. 이는 《논어집주(論語集註)》의 체제를 계승한 것이다. 본문은 먼저 중국어를 우측 윗부분에서 시작하여 위에서 아래로 줄을 바꿀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열하였다. 그 오른쪽 옆에는 발음 두 종류로 맨 위는 광둥어(Cantonese), 그 아래는 푸통화(Mandarin)로 보이며 광둥어 발음은 빼놓지 않고 제시하지만 푸통화는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푸통화 발음은 드물게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광둥어 옆의 숫자는 성조이다. 그렇지만 이 성조는 광둥어 자체의 성조라기보다는 平上去入을 각기 1, 2, 3, 4로 대응하여 제시한 것이다.⁴⁾ 한자 왼쪽에는 숫자를 병기하여 아래의 번역(Translation)에 해당하는 단어의 위에 표시하고 아래의 주석(Remarks on the character) 부분에서 번호에 해당하는 한자에 대한 주해를 기술하였다. 번역과 주석 사이에 의견(Comment)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서 주희(CHEU-HEE, 朱熹)와 기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대부분 《논어집주》에 기재된 것이다.

學而장 첫 문장에 대한 예는 다음 그림과 같다.

4) Marshman(1809), p.xxxvi.



이 마시만의 《논어》 영역은 최초의 영역으로, 이후 제임스 레그의 번역이 두루 사용되기 전까지의 다양한 번역 중 하나로 나왔다. 당대의 평은 그리 좋지 못하였는데, 아벨 레뮈자(Jean-Pierre Abel-Rémusat, 1788-1832)에 의해 기존 연구의 재탕이라는 평을 받았다.⁵⁾ 그렇지만

5) 최정섭(2023), pp.299-300 참조. “중국문학사에 대해 조금 연구를 한 사람이라면 모두 마슈만의 연구에 무슨 신선한 곳이 있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며, 중국문학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마슈만의 연구내용에 대해 아무런 흥미도 일으키지 않을 것”과 “프랑스 선교사가 이미 해놓은 연구에 비해 마슈만의 연구는 그 어떤 커다란 창신도 없다”는 것이 그 비판점이다. 이에 대한 프랑스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Abel-Rémusat(1826), p.282. “Mais tous ces objets sont rebattus pour ceux des lecteurs qui sont un peu familiarisés avec l’histoire littéraire de la

이는 너무나도 각박한 평으로, 번역상에서 전면으로 내세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도도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비근한 예로 첫번째 “學而時習之”에서의 ‘而’에 대한 마시만의 설명이다.⁶⁾

Gnee 단순 문자⁷⁾이다. 접속사로 기능하며 ‘그리고’, ‘~도’ 혹은 ‘그러나’를 의미한다. 조동사로 ‘~해야 한다.’, ‘~할 의무가 있다’를 뜻하기도 한다. 이 의미로 해당 문장을 해석하면 “배움은 반드시 계속해서 연습해야 하는 것이다.”⁸⁾

즉 ‘而’에 대해 마시만은 접속사로서의 기능과 조동사로서의 기능 두 가지에 대해 제시하였다. 특히 후자인 조동사로서의 ‘而’는 ‘能’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문장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 새로운 해

Chine, et peu intéressants pour ceux à qui elle est étrangère: et comme M. Marshman n'ajoute aucun fait important aux détails qui se trouvent rapportés dans les mémoires de nos missionnaires, je crois inutile de faire une critique détaillée de cette partie de son travail, et je me bornerai à un petit nombre d'observations détachées.” 이에 대한 중국어 번역은 孫帥(2014)를 참조하였다. “可惜的是, 那些對中國文學史稍有研究的人, 都不會認為馬士曼的研究有什麼新鮮之處, 而那些對於中國文學一無所知的人, 對馬士曼的研究內容又不會提起絲毫的興趣, 相比法國傳教士已經做過的研究, 馬士曼的研究沒有任何大的創新之處, 所以我不準備對他的譯本作通篇的評介.”

- 6) 그 번역은 김혜영(2022), p.117.에서 가지고 왔지만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였다.
- 7) 김혜영(2022), p.117에서는 ‘간단 구조’로 번역하였다. 원문에서는 이를 ‘simple character’라 제시하였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compound character’로,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 보자면 ‘simple character’는 육서에서의 상형, 형성을 가리키고, ‘compound character’는 두 자 이상의 ‘simple character’가 결합하는 것으로 회의, 형성 등에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단순 문자’로 번역하고자 한다.
- 8) 이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Gnee, is a simple character, which has generally the force of the conjunctions, and, also; sometimes, however, it seems to perform the office of the auxiliary should or ought. If we give it this meaning here, the sentence will read, “to learn, you should continually practise.””

석이라 할 수 있다.

‘學而時習之’의 ‘而’를 ‘能’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역대 《집해(集解)》, 《의소(義疏)》, 《집주(集注)》 모두 이러한 해석을 더한 곳은 없었다. 유보남(劉寶楠)의 《논어정의(論語正義)》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더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내용이 모두 모여 있는 청수덕(程樹德)의 《논어집석(論語集釋)》에서도 이러한 풀이를 살펴볼 수 없었다. 한국의 현토 체계에서는 이 구절을 ‘~면’으로 읽는 것에 의거하면 ‘而’는 오히려 ‘如’ 또는 ‘若’로 풀이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한 가지 가능성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형병(邢昺) 소(疏)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學者而能以時誦習其經業, 使無廢落, ”(배우는 사람이 때에 맞추어 배움을 반복하여 옳고 익힐 수 있어 못 쓰게 되지 않게 한다.) 여기에서 ‘能’으로 풀이하는 것을 계기로 삼았을 수 있다.

‘而’를 ‘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일찍부터 언급된 내용이다. 《여씨춘추(呂氏春秋)·사용(士容)》 “士不偏不黨, 柔而堅, 虛而實.”(선비는 치우치지도 않고 편들지 않으며, 부드러운 것이 단단해질 수 있고, 빈 것이 꼭 찰 수 있다.)에 대한 고유(高誘)의 주(注)에서 “而, 能也.”라 풀이한 것이 있다. 또한 운서 중 《집운(集韻)》卷四 平聲 十七 登韻에서도 ‘而’ 항목에서 또한 ‘能’과 관련을 짓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단옥재(段玉裁)는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 卷九下 ‘而’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或釋爲能者, 古音能與而同. 段而爲能, 亦段耐爲能.”(‘能’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옛날 음은 ‘能’과 ‘而’가 같다. 따라서 ‘而’를 ‘能’의 의미로 가차하기도 하고, 또한 ‘耐’를 ‘能’의 의미로 가차하기도 한다.) 따라서 ‘而’를 ‘能’의 의미로 풀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본 논문의 내용과 연결 짓자면 마시만(1809)에서 ‘而’를 ‘能’의 의미로 풀이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풀이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시만(1809) 본문의 번역으로 제시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이용하여 번역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동사로서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그에 따르면 해석이 변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2.2 중국어 사전에서의 인용

19세기에 진출한 서양 선교사에 의해 다양한 중국어 사전이 편찬되었다.⁹⁾ 이 중 《논어》가 인용된 사전으로 메드허스트(Walter Henry Medhurst)가 1832년에 편찬, 발간한 《A Dictionary of the Hok-keen Dialect of the Chinese Language》¹⁰⁾를 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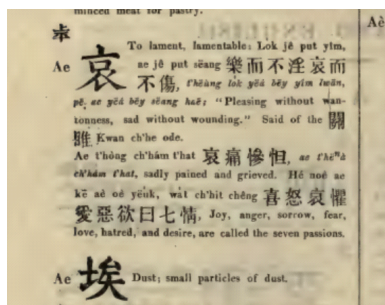
윌터 헨리 메드허스트(麥都思, 1796-1857)는 영국 개신교 선교사이자, 회중교회(Congregationalist) 소속으로, 런던선교회(London Missionary Society)에 의해 1819년 말라카(Malacca, 馬六甲)로 파견, 그곳에서 중국어 관화 및 방언 학습과 저술 및 선교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후 1842년 상하이에서 London Missionary Society Press(墨海書館)을 설립하였다. 저작으로는 『福建方言詞典』(1837), 『中國的現狀和展望』(1838), 『漢英字典』(1842, 3), 『英漢字典』(1848), 성경 번역

9) 이에 대해서는 “1. 들어가며”에서 언급한 리샤오판 등(2025) p.71에 그 목록이 있다.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모리슨(R. Morrison)의 《광둥토화자휘(廣東土話字彙)》(1829), 메드허스트의 《푸젠방언사전》(1832), 차머스(J. Chalmers)의 《영웨자전(英粵字典)》(1859), 더글러스(C. Douglas)의 《샤먼말중영구어대사전(廈門話漢英口語大詞典)》(1873) 등을 들 수 있다.

10) 이를 번역하면 《푸젠방언사전(福建方言詞典)》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축약하여 제시할 경우 메드허스트(1832)라 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서명으로 제시할 때에는 《푸젠방언사전》이라 표기한다.

(深文理) 등 다수가 있다.

그가 1832년 편찬, 발간한 《푸젠방언사전》의 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 부분에 푸젠(福建) 지역에 대한 역사와 통계적 해설을 전반부에 포함하였다. 그 속에서 인구, 구분 및 하위 구분 등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표기법을 통해 성모 15개, 운모 50개, 성조 7개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하에서는 로마자 순서에 의거하여 한자를 배치하였고 동일한 로마자 표기일 때에는 성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끝 부분에는 한자로 찾고자 하는 경우를 위해 부수표(A table of the radicals)와 부수 색인(An Index of the characters with occur in this dictionary arranged according to the radicals)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본문에 인용된 경전 중 특히 《논어》를 위주로 다루고자 한다.



《푸젠방언사전》에서는 해당 한자와 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p.2의 哀자의 경우 해당 방언에서의 발음인 'Ae'가 해당 한자의 앞에 제시되고 이어 해당 한자의 의미로서 'To lament (슬퍼함), lamentable(슬퍼할 만

한)'이 나온 후, 그에 대한 예문으로서 《논어》의 “樂而不淫 哀而不傷”(八佾20)이 제시된다. 이때에도 한자 원문 앞과 뒤에 이어 해당 한자의 발음이 나온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앞 부분은 문독(文讀), 뒤 부분은 백독(白讀)으로 파악된다.¹¹⁾ 백독 뒷 부분에 해당 원문에 대한 영어 해석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마시만(1809)의 것도, 이후 등장한

11) 이에 대해서는 Medhurst(1832), lvii 참조.

데이비드 콜리(1828)의 것도 아닌 번역으로, 아마도 메드허스트 자신이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Ae 哀 To lament, lamentable: Lok je put yin ae je put seang
樂而不淫 哀而不傷 t'heung lok yea bey yim lwan, pe ae yea bey
seang hae: "Pleasing without wantonness, sad without
wounding". Said of the 關雎 Kwan ch'he ode.

당시 발간한 몇 종의 사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메드허스트의 것은 사서오경 및 제자서의 본문을 충실히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발간한 로버트 모리슨의 중국어 사전에서는 드물지만 ‘約’條에서 “不仁者不可以久處約.”(《論語·里仁》)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¹²⁾ 그에 비해 메드허스트의 사전에서는 《논어》에 쓰인 한자 중 어렵다고 생각하는 글자나 대표로 쓰일만한 글자에 《논어》 예문이 나온다. 예를 들어 p.727 Wün 항목에서는 ‘慍’, ‘縕’, ‘韞’자가 속하는데, 그 예시로 각각 “人不知而不慍”(學而01), “衣敝縕袍”(子罕27), “韞匱而藏諸”(子罕13)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메드허스트(1832)에서 인용한 《논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메드허스트는 한자에 대한 푸젠방언의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어》를 중국어 학습의 기본 예문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3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12) Robert Morrison(1823) p.2.

3. 서양 선교사 《논어》 활용의 특징 및 의의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논어》의 번역과 사전에서의 인용 등을 통해 그 특징 및 의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마시만(1809)에서의 특징은 해당 한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즉 같은 문헌에 포함된 ‘번역’과 ‘의견’이 이전 내용에 대한 반영이라고 한다면 한자 설명이 주로 진행된 ‘주석’ 부분이 마시만의 의견이 온전하게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예를 든 ‘而’에 대한 독특한 해석 또한 ‘주석’에서 언급된 것이다. 메드허스트(1832)에서는 푸젠방언의 형태로 들고 있지만, 그 예문은 사서오경으로 《논어》 또한 그 속에서 예문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당시에 발간된 다른 사전에 비해 문언문, 즉 고문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구어보다는 문어에 치중하는 것으로 특징을 삼을 수 있다. 덧붙여 중국어 방언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서술되었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전 16-17세기 예수회의 선교가 지식인을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19세기 서양 선교사에 의해서는 다양한 종파에 의해 다양한 지역에 파견되면서 해당 지역의 방언으로 선교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해당 언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마시만이 광둥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메드허스트가 민방언의 대표격인 푸젠어로 사전을 작성한 것은 그러한 활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¹³⁾

또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논어》 구절에 대한 영문 번역이다. 아직 하나의 번역으로 정착되기 이전의 상황인지라 다양한 번역의 형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學而 01 學而時習之不亦說乎에 대한 각각

13) 이에 대해서는 신원철(2024), p.377-380 참조.

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¹⁴⁾

Marshman(1806): Learn: and continually practise. Is it not delightful?

Collie(1828): To learn and constantly digest, is it not delightful!

Medhurst(1832): To learn and constantly to exercise one's self in it, is it not delightful?

Legge(1869): Is it not pleasant to learn with a constant perseverance and application?

이에 대한 현대 중국어 및 한국어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Marshman(1806)의 漢譯/韓譯: 學習, 並不斷練習。這不令人愉快嗎?/배우고, 끊임없이 연습하세요. 정말 즐겁지 않나요?

Collie(1828)의 漢譯/韓譯: 學習並不斷消化, 豈不令人愉快!/배우고 끊임없이 소화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Medhurst(1832)의 漢譯/韓譯: 學習並不斷鍛鍊自己, 不是很令人愉快的嗎?/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Legge(1869)의 漢譯/韓譯: 堅持不懈、孜孜不倦地學習不是很愉快嗎?/끈기와 노력을 기울여 배우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까요?

이러한 번역의 多岐한 상황을 일일이 살피는 것 또한 하나의 즐거움으로 볼 수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세 번역 모두 continually, constantly, constant 등을 통해 '時'를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朱熹의 '時時習之'라는 풀이에 충실히 적용했음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레그(1869)에서 덧붙인

14) 이 번역은 Google Translation의 결과물을 이용하였다.(접속일: 2025. 7. 1.)

‘application’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朱熹가 인용한 謝氏(謝良佐)가 말한 “時習者, 無時而不習。坐如尸, 坐時習也; 立如齊, 立時習也。”에 대한 반영으로 볼 수 있으니, 그만큼 James Legge가 주도면밀하게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콜리(1828) 이하에서는 ‘學’에 대해 ‘배우다’라는 동사에 to 부정사를 붙여 명사적으로 사용, 즉 ‘to learn’의 형태로 번역하고 있지만, 마시만(1809)에서만은 ‘learn’ 단독으로 사용하여 명령형, 즉 ‘학습하라/연습하라’ 등으로 보고 있다. 구문 상으로는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메드허스트의 경우 《논어》의 동일한 구절이 다양한 곳에서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論語》 八佾의 “樂而不淫”은 메드허스트(1832)에서 두 군데에 인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p.2에서 Ae 哀의 예문과 p.752에서 Yim 淫의 예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한자 원문과 영어 번역문만을 제시한다.

p.2 Ae 哀 樂而不淫 Pleasing without wantonness,

p.752 Yim 淫 關雎樂而不淫 the Kwan ch'he ode is pleasant without being obscene:

동일한 두 예문에 대해, 특히 ‘淫’자에 대해 Ae 哀의 예문에서는 ‘wantonness’로, Yim 淫의 예문에서는 ‘obscene’로 번역하였다. 사용한 번역어의 뉘앙스의 차이까지 파악하는 것이 외국인인 필자로서는 어렵지만, 메드허스트(1832) 내에서도 한 가지로 통일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또한 두 구문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주어가 존재하지 않고, 후자는 ‘Kwan ch'he’(關雎)라는 주제가 추가되어 있기에 영역된 구문의 차이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즉 전자는 명사구로, 후자는 완

정한 문장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미리 《논어》 전문을 번역한 후에 예시로 들었다기보다는 해당되는 예문을 그때그때 번역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처럼 동일한 문장에 대해서도 다른 번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마시만(1809)와 메드허스트(1832)를 위주로 서양 선교사의 《논어》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크게 두 종류, 즉 번역과 사전에서의 인용을 통해 중국어와 그 안에 쓰여 있는 한자 등을 학습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마시만(1809)은 최초의 영역 《논어》로 라틴어 및 프랑스 번역 및 사전의 도움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속에서도 독특한 자신만의 견해를 풀어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메드허스트(1832)에서는 현재의 민방언으로 파악되는 푸젠방언의 사전을 편찬하면서 다른 사전과 달리 《논어》를 포함한 사서오경을 그 예문으로 삼고 있고, 해당 예문에 대해 번역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서양 선교사의 《논어》 활용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어 학습에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마시만(1809)에서는 《논어》 원문을 정면으로 내세우면서도 한자에 대한 꼼꼼한 설명이 추가되면서 거기에 《논어》 번역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도 추가하였다. 메드허스트(1832)에서는 표준중국어(푸통화)가 아닌 선교 현지의 언어인 푸젠방언에 대해 정리하면서도 예문으로 《논어》 등 사서오경을 제시하는 것은 중국어 학습의 일환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시만(1809)과 메드허스트(1832)의 《논어》 번역을 보자면 이후 보편적으로 알려진 레그(1869)가 나오기 이전

의 《논어》 영역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를 띠는가에 대해 볼 수 있었고, 심지어 메드허스트(1832)에서는 같은 예문에 대해서도 다른 번역을 제시하는 등 아직 정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메드허스트(1823)에서 전체 표제어에 대한 《논어》 예문의 수와 그 현황 등과 같은 자세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후속 논문에서 기대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혜영(2021), 서양 선교사의 사서(四書) 번역사에 대한 기초적 고찰, 《중국학연구》 제98집, 중국학연구회.
- 김혜영(2022), 서양 선교사 조슈아 마시만(Joshua Marshman)의 중국어 연구와 번역에 대한 기초적 고찰, 《중국문화연구》 제55집, 중국문화연구학회.
- 리샤오판, 상명빙 저, 강은지 등 역(2025), 《중국어 방언학의 기초》, 학교방.
- 신원철(2022), 동서 교류에 있어서 중국 경전의 번역 및 그 영향 - 초기를 중심으로, 《경학》 4집, 한국경학학회.
- 신원철(2024), 서양 선교사가 학습한 중국어 비교 연구 - 예수회 및 개신교를 위주로, 《중국문학》 120집, 한국중국어문화학회.
- 이영호·손철배(2012), James Legge의 『論語』 번역의 특징과 위상, 《동양철학연구》 제70집, 동양철학연구회
- 최정섭(2023), 인도에서 시작된 초기 영국 중국학에 관한 고찰 - 윌리엄 존스와 조슈아 마슈만을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제64집, 외국학연구소.
- 雷慕沙(Abel-Rémusat) 著, 孫帥譯(2014), 〈雷慕沙評兩部中國經典譯本〉, 《國際漢學》 新版第一期.
- 丁度等(1983), 《集韻》, 上海古籍出版社.
- 程樹德(1990), 《論語集釋》, 新編諸子集成, 中華書局.

何晏注·邢昺疏(2000), 《論語注疏》, 十三經注疏整理本, 北京大學出版社.
許維通(2009), 《呂氏春秋集釋》, 新編諸子集成, 中華書局.

Abel-Rémusat(1826), 〈Sur la traduction du Lun-ïu, par M. Marshman〉,
MÉLANGES ASIATIQUES Tome Second, Paris: Librairie
orientale de Dondey-Dupré père et fils.

Huang Yuxia(2023),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the Analects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cation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1~Issue 2.

Joshua Marshman(1809), *The works of Confucius containing the original
text, with a translation*, Serampore: The Mission Press.

Robert Morrison(1823),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Vol.III-Part
I.*, East India Company Press.

David Collie(1828), *The Chinese classics work commonly called the Four
Books*, The Misson Press.

Walter Henry Medhurst(1832), *A Dictionary of the Hok-keen Dialect of the
Chinese Language*, East India Company Press.

19th Century Chinese-English Translation Network(<https://translator.net/works/tra.cuhk.edu.hk/>, 접속일: 2025.11.01.)

A Study on the Utilisation of the Analects by Western Missionaries in the Early 19th Century

Shin, Wonchul*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he Chinese classic, the Analects, was utilised by Western missionaries in the 19th century. In the translation category, we will examine the utilisation of the Analects through Joshua Marshman's *The Work of Confucius containing the original text, with a translation* and, in the dictionary category, we will also do through Walter Henry Medhurst's *A Dictionary of the Hok-keen Dialect of the Chinese Language*. As we have seen, the characteristics are that in Marshman's work, he is faithful to the explanation of Chinese characters and expresses his own opinions within it, while in Medhurst's work, although it is a dictionary of dialects, he takes examples from the Four Books and Five Classics. Additionally, it was seen that both works utilised the Analects as part of the Chinese learning.

Key Words

East-West exchanges, The Chinese classics, the utilisation of Chinese classics, the Analects, Western missionary, Joshua Marshman, The Work of Confucius, Walter Henry Medhurst, A Dictionary of the Hok-keen Dialect of the Chinese Language, Four Books and Five Classics, Chinese learning

논문접수일: 2025.12.08. 심사완료일: 2025.12.16. 게재확정일: 2025.12.30.

* HK assistant professor, HK+ project team, Institute for Theology, Anyang University. / E-mail: chimsky@paran.com